



2023. 02
Vol. 611

부산상공회의회

Story for 부산CEO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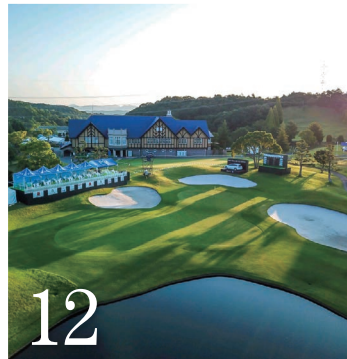
2월호



Contents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AGAZINE 2023 vol. 611

발행일 2023년 2월 6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활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BCCI Special

04 2023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부산상공회의소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 08 국내 여행 추천지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의 밤, 부산 야경 여행
- 12 골프에 반하다
- 일본 골프여행의 정수로 불리는 '고베'
- 골프의 경제학
- 16 메시지 인 시네마
<자산어보> 역전된 세계관이 던지는 질문
- 18 CEO를 위한 추천맛집
담백한 맛이 일품인 민물장어 맛집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
- 20 가객의 인문학
인생 역주행을 꿈꾼다면,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ZOOM in BCCI

- 22 STORY OF 캡틴장
- 24 Together with 2030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의 힘으로!
- 26 기업포커스
(주)오리엔탈정공
- 30 Look at Me
스타트업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주)'

트렌드 TALK

34 부산 청년들에게 필요한 성장의 배경

경제 트렌드

- 36 경제키워드
- 확정된 경기침체, 변수는 달러와 중국
-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3'
- 40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 42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 46 멤버스 라운지
-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2023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

2023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

부산상공회의소는 1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부산 연고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인화 회장,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의장, 하윤수 교육감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부산 출향인사 신년인사회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출향인사 신년인사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교육감과 부산 지역 주요 기업인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안철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하여 서병수, 박재호 의원 등 부산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출향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는 부산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부산 발전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로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부산시 소통캐릭터 부기와 기념촬영하는 장인화 회장, 박형준 시장, 안성민 시의회의장, 하윤수 교육감

부산 경제 5대 핵심현안 추진에

부산 경제계가 앞장서 나갈 것

장인화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부산 경제의 축을 바꿔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필두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까지 5대 핵심 현안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면 부산의 재도약은 빨라질 것”이라며, “동남권 중추도시이자 동북아를 대표하는 복합물류와 금융·관광 허브로 부산이 발돋움하는데 지역 경제계가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히며, “출향인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경제 5대 핵심현안 추진

1.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3.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4. 북항 재개발 조속 완공
5.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 ① 환영사를 하는 박형준 시장
- ② 환영사를 하는 안성민 시의회의장
- ③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는 이진복 정무수석
- ④ 축사를 하는 하운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박형준 시장은 “출향인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이래 가장 많은 ‘부산갈매기’가 참석하여 감사하다”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부산 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해 꼭 이뤄야 하는 꿈”이라며,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성민 시의회 의장도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리려고 하는 만큼 부산이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여러분이 그리는 부산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에서는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물류도시로 도약을 준비한 부산은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양대 축”이라며 “부산월드엑스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진정한 힘 인만큼 민간, 국민과 힘을 모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고 전했다. 하운수 교육감의 축사에서는 “부산의 발전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하는 만큼 2023년을 인성기반 학력신장과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 분야에서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의 미래 비전 공유

2023년은 부산이 새롭게 재도약하는 해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이 출향인사들에게 부산의 강점과 미래 발전상이 담긴 ‘부산 미래 비전’을 직접 브리핑하였으며, 4월로 예정된 국제박람회 기구의 2030세계박람회 현지 실사에 앞서,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분위기 조성에 출향인사들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며

부산 미래 비전 브리핑 이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라이트온 세리머니를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세리머니 이후에는 안철수, 김기현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주요 초청 인사들의 부산의 미래를 위한 건배제의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요 참석자들이 무대에 올라와 부산 갈매기를 다함께 합창하며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안철수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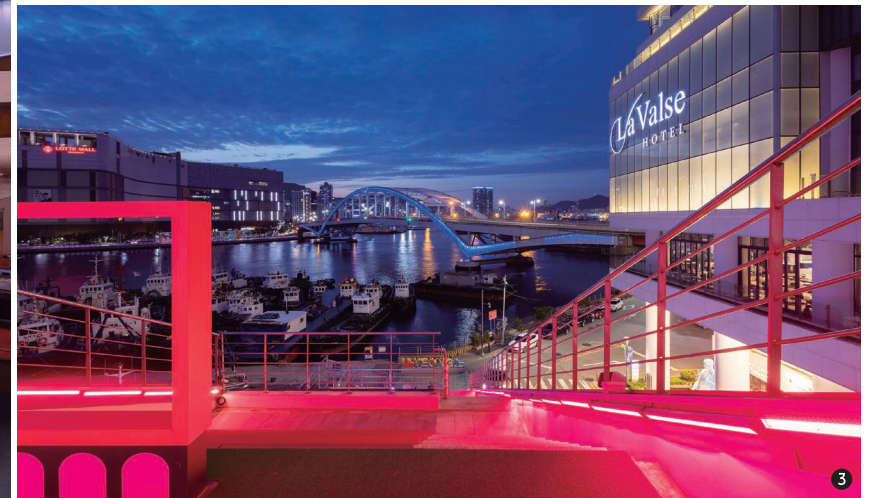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⑤ 참석자들의 부산 갈매기 합창

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퍼포먼스



1 2 3 영도관광안내센터 전망대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의 밤, 부산 야경 여행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겨울은 야경의 계절이다. 차가운 공기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만나 깨끗한 하늘을 선물하는 지금이 일 년 중 가장 선명하고 또렷한 야경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 야경 하면 부산을 빼놓을 수 없다. 하늘 높이 솟은 마천루가 화려한 야경을 뽐내는 해운대 마린시티는 백만 불짜리 홍콩 야경에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비롯해 북항대교와 남항대교 등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만드는 이색적인 야경은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부산 야경의 진수다. 야경만 찾아다녀도 일주일 이 모자랄 만큼 부산 곳곳에 야경 스팟이 즐비하다. 그 중에서도 부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야경 명소 4곳을 골랐다.

영도관광안내센터 전망대

부산의 구도심인 중구와 영도를 잇는 부산대교를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사이 작은 포구에 위치한 영도관광안내센터다. 영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공간이지만 옥상은 전망대로 꾸며놓았다. 그리 길지 않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포구에 정박한 배들 뒤로 부산대교와 영도대교, 남포동 일대와 자갈치시장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서쪽 하늘로 해가 기울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오면 주변 건물들이 하나 둘씩 불을 밝힌다. 영도대교와 부산대교에 조명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야경 타임이다. 전망대에

설치된 형형색색의 조명까지 가세해 한바탕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영도에서 바라본 구도심의 야경이 이토록 매력적인 줄은 미처 몰랐다. 고개를 들어 시선을 넓히면 중구와 서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복도로를 따라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불빛들이 영롱하다. 전망대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빛의 잔치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화려한 건물 사이에 잔뜩 모여 있는 배들이 생경하다. 부산에 살면서도 배와 포구를 이토록 가까이에서 볼 일이 거의 없던 탓이다. 항구도시 부산의 밤을 이토록 잘 보여주는 장소가 또 있을까. 지나가는 배들이 울리는 긴 뱃고동 소리가 음악처럼 감미롭다.



1 2 만덕고개 전망데크

만덕고개 전망데크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 만덕고개길은 금정산 남쪽에 있는 옛길이다. 만덕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동래와 구포를 이어주던 유일한 길이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상인들이 보따리 짐을 지고 동래장과 구포장을 오갔던데, 중간에 도적을 많이 만났던 모양이다. 만 명이 함께 가야 도적떼를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만농고개’라 불렀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의 만덕고개가 그 ‘만농고개’에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만덕터널이 두 개나 생기면서 이제는 굳이 오를 일이 없는 길이지만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길 초입부터 울창한 숲이 펼쳐 지는데다 잘 정비된 산책로가 길 정상부까지 이어져 건너 뛰는 사람이 적지 않다. 뱃나무로 가득한 숲속 카페와 기암 괴석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금강대 옥불사 등 길 중간 중간에 볼거리도 많다.

그렇게 숲길을 따라 부지런히 걷다 보면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난다. 그리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도심 풍경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사람들이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어두었다. 만덕고개 전망데크다.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전망대에 서면 동래 일대는 물론이고 멀리 해운대 마린시티와 그 뒤로 펼쳐진 바다까지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다. 해질 무렵에 도착해 도시에 어둠이 내리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길 추천한다. 희색빛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제각각 빛을 내며 창백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법을 말이다.

영도 청학배수지전망대

최근 들어 부산의 항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들이 새로운 야경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름하여 ‘하버뷰’ 명소들이다. 부산항이 있던 북항을 비롯해 자성대부두와 신선대 부두, 북항을 가로지르는 부산항대교를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어서 사진가들도 즐겨 찾는다. 영도에 있는 청학배수지 전망대도 그런 하버뷰 명당 중 하나다. 도로변에 위치해



3

접근성이 좋은데다 나무데크로 전망대를 잘 만들어 놓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산의 항구 야경을 쉽게 즐길 수 있다. 밤에도 운동을 하는 주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도 않다. 부산 야경을 보며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 분위기도 남다르다. 청학 배수지전망대의 핵심은 역시 부산항대교다. 광안대교의 야간조명이 웅장함이라면 부산항대교의 야경은 화려함이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시시각각 다양한 색깔로 변신하는 부산항대교의 야간조명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대교 뒤로 보이는 문현금융단지과 북항, 부산역 일대의 도심 야경도 놓칠 수 없다.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부두의 풍경은 이국적이기까지 하다.



3 4 영도 청학배수지전망대

5 6 부산 엑스더 스카이



5



6

부산 엑스더 스카이

해운대해수욕장에 자리한 엘시티 건물 100층에 전망대가 있다. 바로 부산 엑스더 스카이다. 엘시티의 가장 꼭대기인 98층부터 100층까지 3개 층에 전망대가 들어섰는데, 시원한 통유리창을 통해 부산을 동서남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무려 411m의 높이에서 아찔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이미 부산의 명소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밤이 되면 멋진 조명이 켜진 부산의 야경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어서 로맨틱한 데이트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론이고 동백섬과 마린시티, 광안대교와 이기대. 멀리 부산항대교와 남포동 일대. 반대편에선 송정과 기장까지. 부산의 전부를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보던 광안대교 야경도 하늘에서 보면 색다르다. 밑에선 잘 보이지 않던 도심 구석 구석이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에 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게다. 해가 질 무렵에 올라가서 일몰과 야경을 함께 보고 내려오는 것이 최적의 코스다. 내부에 스타벅스와 레스토랑도 있으니 식사나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전망대를 즐겨봐도 좋다. 🌃

일본 골프여행의 정수로 불리는 고베

글·사진 Ytour&golf
www.ytour&golf.co.kr

일본 효고현 고베시는 골프와 관계성이 매우 강한 지역으로 일본 골프의 발상지로 불린다. 경상남도 보다 작은 면적에 무려 150여개 골프장이 산재해있으며, 골프 역사도 오래되어 일본이 외국과의 문호를 개방한 1903년 일본 최초의 골프장인 고베 골프클럽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아이언의 헤드 생산 발상지도 효고현 이치카와초라고 알려져 있다. 태평양 롯데CC, 아리마켄츄리CC, 하나야시키오카와CC 등 PGA, LPGA 수준의 챔피언 코스 골프장이 즐비하고 골퍼라면 한번쯤 라운드를 해보고 싶은 일본 최고의 클럽이 고베와 효고현에 곳곳에 있다. 간사이공항에서 호텔까지 60분, 호텔에서 골프장까지 30분이면 다운타운 골프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고베골프는 안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번 다녀온 사람은 없다는 말로 그 가치를 입증한다.



태평양 롯데CC

추천 골프장

태평양 롯데CC

1975년 개장한 태평양 롯데 CC는 2002년 일본여자 프로 선수권과 2014년부터 매년 일본 시니어 대회를 개최한 코스로 웅대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챔피언 코스로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코스 공략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18홀 / 7,032야드)

하나야시키CC

1959년 개장한 히로노 코스와 1973년 개장한 요가와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가와 코스는 매년 4월에 LPGA 투어를 개최하는 토너먼트 코스로 섬세한 챔피언 코스로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즐길 수 있다. 히로노 코스는 넓은 부지를 활용한 정취 있는 코스로 페어웨이가 넓고 전체적으로

플랫한 직선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음껏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하나야시키CC는 일본 2,500여개 골프코스 순위 중 꾸준히 100대 명문 코스에 선정되고 있는 코스이기도 하다. (히로노코스 18홀 / 6,750야드 / 요가와코스 18홀 / 6,840야드)

아리마CC

LPGA 공식대회 개최 골프장으로 상급자부터 초심자까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이며, 연습시설이 간사이 지방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골프장에 천연온천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일본 4대 온천인 아리마 온천을 근처에 두고 있어 골프 이후 온천 휴양도 가능하다.(18홀 / 6,821야드)

하나야시키CC



메리켄파크 오리엔탈 호텔

추천 숙소

메리켄파크 오리엔탈 호텔

270도 오션뷰 제공, 대형 유람선 모양이 특징인 호텔로 14층 바에서 보는 고베의 야경이 하이라이트이다. 3층 레스토랑의 조식 뷔페는 마치 호화유람선에서 즐기는 조찬같으며, 모든 객실에 설치된 전용 발코니에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다.

오쿠라 호텔

한국의 신라호텔이 벤치마킹한 호텔로 알려져있으며, 천황이 머무는 고베 시내 최고급 호텔이다. 일본 정원과 고베항을 전망할 수 있는 메인 로비를 시작해 영국 왕실의 디자이너가 연출한 객실 등 우아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다. 호텔내 각 레스토랑에서는 일식, 중식, 양식, 유럽풍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오쿠라 호텔

관광지 소개

차이나타운: 상점이 뻥뻥하게 자리한 이곳에서는 중국의 향취가 느껴진다. 간식거리나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과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며, 이곳의 중앙 광장에는 십이지신을 본떠 만든 조각들도 볼 수 있다.

하버랜드: 고베 포트 타워와 메리켄 파크에서 길을 따라 몇 분만 걸어가면 현지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는 고베의 관광명소인 고베 하버랜드가 나타난다.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를 즐길 수 있으며, 소풍을 좋아한다면 하버 서커스와 고베 한큐 백화점을 들리면 된다.



기타노초: 고베는 1800년대 후반 국제 교역을 위해 최초로 개항한 도시다. 기타노초는 배를 타고 고베에 도착한 외국인 이주민이 정착한 지역이다. 산노미야역에서 북쪽으로 15분 정도만 걸으면 기타노 거리가 나타나는데 이 거리를 따라 빅토리아 또는 고딕 양식으로 지은 이진칸(양옥)을 구경할 수 있다.



히메지성: 일본 국보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히메지성은 이른 봄이 되면 성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구경하며 피크닉을 즐기거나 편하게 쉬려는 현지 주민과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이다.

골프의 경제학

글_ 김대곤 대표  Ytour&golf
www.ygolf.co.kr

골프에 있어 PGA의 위상은 독점적이다. PGA산하 KPGA 정회원이란 타이틀을 많은 국내프로들이 훈장처럼 명함에 새기고 건네주는걸 보면 그 위상을 가늠할수 있다. PGA투어는 돈과 역사, 권위를 겸비한 전 세계 프로들이 뛰고 싶어하는 명실공히 꿈의 무대이다. 선망하는 유명스타가 총출동하는 리그이며, 골프 팬들에게 다른 대안은 없다. 독점적 위상만큼 구설수도 많다. 투어프로에 대한 상금은 천문학적인 스폰서 금액에 비하면 너무 소액이었고 경기방식도 매년 언제나 그대로였다. 고인 물은 썩는다 라는 이치를 PGA는 답습해오고 있다.

→ 오일머니를 앞세운 PGA 대항마 LIV투어의 파괴적 혁신

최근 PGA투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본으로 출범한 LIV투어가 그것이다. 최근 호주의 백상어 글렉노만을 대표로 선임한 LIV는 필 미켈슨까지 합류시키며 PGA의 아성을 하나씩 무너트리고 있다. 이미 저스틴로즈, 디셈버, 캐머런 스미스 등 명성을 가진 세계적인 골퍼들이 이적을 완료했고 유러피언투어의 스타프로까지 합류시키며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연간 50억달러에 이르는 상금을 통해 플레이어들에게 두둑한 지갑을 채워주고 있다. 불과 출범한지 2년밖에 안된 LIV는 시작하자마자 PGA와 더불어 세계골프시장을 양분했다. LIV는 오일머니와 함께 경기방식에 있어서도 혁신을 기했다. 48명의 선수를 컷오프없이 54홀 샷건으로 승부를 가르는 방식을 도입해 대회에 박진감을 기했고 계약금과 상금에 있어서도 플레이어 중심의 운영을 기했다. 최하위를 한 선수도 12만달러, 한화로 1억6천을 챙겼으니 12개 대회로 본다면 최소 20억 이상을 가져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 PGA와 LIV의 경쟁은 골프팬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

이에 대한 PGA투어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LIV에 참여하는 프로들에게 PGA영구퇴출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하고 상금을 대폭 증액하여 선수들의 이탈방지를 도모하기도 한다. PGA는 무엇보다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LIV를 집중 공격한다. 매년 4월 오거스타GC에서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도 없고 매년 여름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류의 디오피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골프팬의 입장에선 PGA와 LIV의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우선 대회가 2배 가까이 늘어나 경이로운 세계적 선수들의 샷을 감상할 일들이 많아졌고 선수들에 대한 보상의 규모와 횟수는 크게 확대되었다.

→ LIV가 과연 PGA의 독점 체제를 끊어 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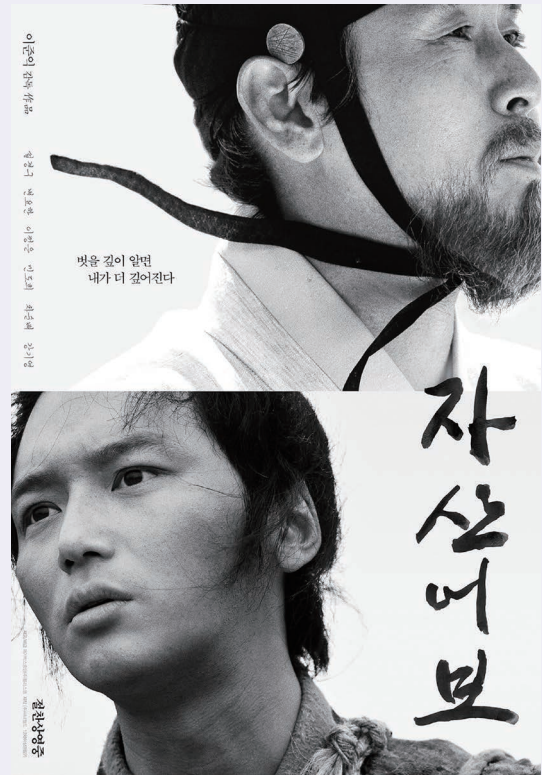
이렇듯 독점은 시장을 지루하게 만들고 경쟁은 다이나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카카오가 처음 시장에 무료문자를 내놨을 때 그 반향은 엄청났다. 그 반향의 크기만큼 기존 문자 메시지 공급자들의 반발은 그 파괴력에 비례했다. 그러나 몇개 통신사들이 독점한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톡은 사용자들의 지지를 통해 폭발적인 사용자들을 확보했고 카카오톡의 서비스는 팬덤을 형성했다. 카카오톡의 천만명의 사용자를 바탕으로 카카오는 국민생활과 서비스플랫폼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계열사 100여개의 공룡기업으로 성장했다. 얼마 전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나타난 몇 시간의 불편은 카카오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골프계에서도 LIV가 PGA의 독점을 끊어낼 파괴적 혁신의 화신이 될지, 그동안 명멸했던 투어처럼 찻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모를 일다. 다만 확실한 것은 독점을 끊어낼 경쟁자의 등장과 경쟁을 통한 혁신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LIV의 건승을 기원한다. 🍀



- ▶ 드라이버의 순 우리말 → 왜이러지
- ▶ 아이언샷의 순 우리말 → 이상하네
- ▶ 퍼팅의 순 우리말 → 에이씨
- ▶ 페어웨이우드의 순 우리말 → 미치겠네
- ▶ 굿샷의 순 우리말 → 가서 볼께요
- ▶ 최악의 샷을 영어로 → 뽀오울
- ▶ 페어웨이란 → 아마추어가 가장 보내기 힘든 넓고 평평한 곳

영화 속 역사가 전해주는 메시지 <자산어보> 역전된 세계관이 던지는 질문

글_ 김은정 영화평론가·영화의전당 시네도스트



바야흐로 팩션(Faction)의 시대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붙인 팩션은 다원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다. 이제 영화가 역사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역사의 충실한 재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선택해 어디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은 역사라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가리킬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준의 감독은 「연산일기」에 등장하는 광대 ‘공길’에 관한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해 영화 <왕의 남자>(2005)를 연출했다. 이후에도 조선왕조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인 영조와 사도세자를 그린 <사도>(2014), 윤동주와 송몽규의 짧은 생을 동주의 시로 펼쳐 보인 <동주>(2015),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대역죄인으로 생을 마감한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를 그린 <박열>(2017) 등 우리나라 팩션 사극의 정수를 보여준 감독이다. 그런 그의 다음 사극 행보가 <자산어보>(2019)였다.

정약전과 제자 창대의 서사

<자산어보>는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이 155종의 수산동식물을 관찰하고 분류해서 펴낸 『자산어보』를 근간으로 한다. 우선 이 영화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부터 생각해보자. <자산어보>는 망망대해 작은 돛배에 앉은 정약전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10여 분 만에 정조의 승하와 어린 임금 순조의 즉위, 천주교 박해, 당대의 천재라 불렸던 정약전 세 형제가 모두 붙잡혀 고초를 겪다 형인 정약중은 사형당하고, 동생 정약용은 당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된 과정을 빠르게 설명한다. 이후 영화는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과 상놈 제자 창대와와의 관계를 주된 서사로 한다. 이준의 감독은 이 영화에서 역사의 거대한 사건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게다가 대중에게 더 잘 알려진 정약용이 아니라 그의 형 정약전을 선택한다. 왜 정약전인가, 더 엄밀하게 말해 정약전과 제자 창대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먹고 사는 문제의 현실을 고민한 정약전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은 바다 생물을 살피고 책을 쓰는데 흑산도 청년 창대의 도움을 받았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서문부터 시작해 이 책에는 ‘창대’라는 이름이 총 9번 나온다. “창대가 말하기를”이란 표현이다. 이는 사실 놀라운 표현이다. 신분 계층이 분명하고, 성리학이 사회의 근간인 조선 사대부가 쓴 책에 공자 왈, 맹자 왈이 아니라 상놈의 이름이, 게다가 그가 말한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영화 <자산어보>가 주목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동생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비롯해 200여 권의 책을 편찬하는 동안, 당대 천재라 불렸던 형 정약전은 바닷고기와 해조류를 살피는, 지극히 실용적인 책을 집필한다. 게다가 중국의 고서가 아니라 흑산도 상놈의 도움을 받았다. 말하자면 정약전은 책에 적힌 글자의 뜻을 해석해 세상의 이치를 밝히려는 이상의 세계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의 현실 세계를 치열하게 고민한 것이다. 영화는 이런 정약전의 세계관을 명징하게 보여주기 위해 창대라는 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신분을 초월한 세계관에서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

영화 속 창대는 양반에게 버림받은 서자, 가난하고 책과 스승이 없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청년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리가 제대로 발현되면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오리라 믿는 인물이다. 가난한 상놈이지만 창대에게 성리학은 이상이다. 그러나 그에 빚대어 묘사되는 정약전은 성리학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며, 차라리 실용적인 탐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여긴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대립한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 신분이 역전된 듯한 세계관,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 <자산어보>는 오늘날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하나의 섬을 음험하고 죽은 검은색 흑산(黑山)으로 볼 것인지, 그윽하고 살아있는 검은색 자산(玆山)으로 볼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흑백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한순간 파랑새가 날고, 검은 바다가 푸른 바다로 바뀌듯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묻는다. 🧠



Movie Info

개봉 2021.03.31. 국가 대한민국
 등급 12세 관람가 러닝타임 126분
 장르 드라마
 사진출처: (주)씨네월드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 가게

담백한 맛이 일품인 민물장어 맛집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지형에 서식하는 장어가 예로부터 맛있다는 유래에서 붙여진 '풍천장어'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민락 수변공원에 위치한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이다.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 내부



민물장어를 들고 있는 장유준 대표

여행 가이드에서 외식 사업가의 길로

외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5년간 필리핀 보라카이와 세부에서 현지 여행 가이드를 해왔다는 장유준 대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먼저 프랜차이즈 곱창 전문점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슈퍼바이저로 부산경남의 매장을 관리하면서 외식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외식업에 대한 경험을 쌓던 중 가족 외식을 위해 장어집을 갔는데, 손님이 많은 모습을 보고 장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이 때 부터 장 대표는 본격적으로 민물장어에 대해 알아보면서 제대로 된 민물장어 식당을 운영해보겠다는 목표 하에 풍천장어로 유명한 전라남도 고창으로 향했다. 현지 민물장어 식당에서 직접 수개월간 일하며 노하우를 익힌 뒤 2019년 3월 수영구 민락동에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를 오픈하였다고 한다.



① 살아있는 강화갯벌장어
② 강화갯벌 민물장어구이와 상차림

고객들이 인정한 친절하 마인드

장유준 대표는 오픈 첫 1년간은 손님이 많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약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많은 고객들이 방문 하기 시작하였는데 갑작스레 고객이 많아진 이유를 단골 고객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장어의 맛과 품질이 일품이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진심을 다해 고객들을 대하는 친절하 마인드에 감동받은 고객이 많았다고 한다. 단골고객이 생기고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민물장어구이 맛집이 되었다. 장유준 대표는 1년간 고객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한 것이 잘전달된 것 같아 뿌듯했다며 늘 고객들을 더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 씩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CS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③ 강화갯벌 민물장어 구이
④ 장어구이와 함께 나오는 산삼배양근, 감태

최상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풍천장어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에는 민물장어, 강화갯벌장어, 산삼 금장어 3가지 메인 메뉴가 있다. 민물장어는 전남 고창 산지 직송으로 매일 공급받으며, 민물장어 품종 중 가장 최상급인 자포니카종을 공급받아 판매한다고 한다. 강화갯벌장어는 최상급 민물장어를 강화도 갯벌에서 75일 이상 순치하여 자연산화 한 것으로 보통 민물장어에 비해 더크고 육질이 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산삼 금장어는 민물장어에 금가루와 산삼배양근이 올라간 메뉴로 보양식인 장어에 산삼 배양근이 어우러져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장 대표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민물장어는 국내 최고의 품질이라며, 장어의 맛과 품질이 고객들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자부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는 현재 민락 본점과 거제리 직영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 대표는 매년 가계가 있는 지역의 요양병원, 보육원 등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장 대표는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만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는게 당연하다며 별도의 봉사재단도 설립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장어 타운 조성을 꿈꾸며

다가오는 4월에 서면에서 세 번째 직영매장을 오픈할 예정 이라는 장 대표는 부산을 넘어 경남, 서울까지도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를 오픈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장 송정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여 장덕풍천산삼 민물장어 타운을 만들어 많은 고객들에게 맛있는 장어를 계속 제공해 나가는데 목표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

인생 역주행을 꿈꾼다면,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글_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인생, 70점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인생 역주행'을 꿈꾸지 않는다. 100을 꿈꾸면 오히려 -50점이 되는 역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만 기대하면 70에 만족하지만, 100을 꿈꾸면, 100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100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좌절감도 더해져 더 불행해진다.

다른 사람 역주행 인생에도 별 관심은 없다.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대중가요의 역주행은 다르다. 오래 전 노래가 지금에서야 떴다면, 그건 그 노래가 과거에 도착한 미래의 메시지라는 뜻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은 22년 3월 발매 후 최근 역주행하며 '멜론 차트 Top100'에 뉴진스와 1.2위를 다투기도 했다. 미스터리다. <사건의 지평선>은 그다지 대중적인 노래가 아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쉽지 않다. 가사는 장황하고 음역대는 폭이 너무 넓어서 아무나 부르지도 못할 노래다. 이 노래가 대학축제에서 폐창으로 불렀다니, 이건 어떤 증상의 발로일까.

짐작컨대, 우리 시대는 지금 뭐든 꽃힐 것을 찾는 시대다. 프로이트가 말한 그 카섹시스(cathexis)의 시대다. 어떤 에너지를 어딘가에 쏟아야만 이 불안과 불확실을 잊을 수 있다. 임영웅에 열광하고, 방탄소년단을 추격하고, 미스 트롯, 미스터 트르소, 스우파, 스맨파, 여기저기서 덕통사고(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일)가 나고, 팬덤과 마니아와 덕질이 퍼져 나간다. <사건의 지평선>은 좀 다르다. 이 노래는 분명 '나만 좋아하는 노래', 자신을 마니아로 만들어준 노래였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결국 '떼'가 돼 버린 경우가 아닐까.

가사가 그럴 만하다. '사건의 지평선'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됐다. 사건의 지평선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나온 말로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의 경계면'을 뜻한다. 블랙홀을 예로 들자면, 어떤 경계면을 넘으면 빛이라 하더라도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계면이 사건의 지평선인 것이다. 그러니까, 윤하의 노래는 '이별'이라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연인과 더 이상 교류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 주목할 것은 이별에 대한 태도다. 이 노래는 이별에 질척거리지 않는다.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이런 가사는 청승이 없고 지적이고 성숙하다. 끈대 스타일도 물론 아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누군가에게 슬쩍 노출시키기 적절한 노래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요 프로그램 1위를 기록할 정도라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윤하의 성공신화'를 탄생시킨다. 누구나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세상은 알아준다는 식의 메시지도 퍼뜨린다. 그러나 정반대다. 윤하의 역주행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윤하의 이야기는 성공신화가 아니다.

문제는, 노력과 역주행을 인과관계로 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식, 혹은 미디어의 욕망에 있다. 노력하면 역주행한다는 명제는, 인생을 노력에 바치는 자기착취자의 보상심리다. 역주행의 시점은 '언젠가'이므로 그 '언젠가'를 어디까지 유예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미디어는 이 심리를 이용한다. 역주행 주인공을 신화적 서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람들의 흥분을 자극할 수 있다. 흥분을 자극해야 지갑이 열린다.

노력과 역주행, 그 사이 상관관계는 있을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편이 역주행 '확률'은 조금 높을 것이다. 그러나 확률이 높다고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변수는 많지 않다. 인생은 내가 모르는 수많은 변수가 만드는 필연적인 사건이다. 다만, 우리가 그 필연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역주행을 바라고 인생의 전략을 짜면 안 된다는 뜻이다. 역주행은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다. 가장 나쁜 선택이 역주행을 위해 내 삶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역주행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역주행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윤하는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순간 가장 만들고 싶고, 만들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다 한다. 그래서 음역대가 그토록 높은, 심오한 가사의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이브로 그렇게 자주 부르게 될 줄 모르고. <사건의 지평선>으로 역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언제나 인생 역주행'이 아닐까. 🌟

Story of 캡틴장

START



제임스 본드 같이 멋진 분위기의
캡틴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by 웹툰작가 배민기

부산상공회의소-사하구청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2023. 1. 3.)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2023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2023. 1. 16.)

의장님도 부산 갈매기 한소절 부르시죠~♪

2023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2023. 1. 16.)

계묘년 새해 부산의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손수득 벅스코 대표이사 예방(2023. 1. 17.)

부산이 글로벌 MICE 도시로 나아가는데
벅스코가 많은 노력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은하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예방(2023. 1. 18.)

위원장님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열심히 해보십시오!

제11기 글로벌경제인과정 수료식(2023. 1. 17.)

수료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유상철 HJ 중공업 조선부문 대표이사 예방(2023. 1. 18.)

사진 잘나왔지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업 기부금 전달식(2023. 1. 26.)

2030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범시민의 힘으로!

글_ 박은하 (새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박은하

- 현)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 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 전) 주영국대사

World EXPO

● 유치를 향해 내딛는 단단한 한걸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있다. 결국 느리지만 끝까지 간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결과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는다. 과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을까? 사람들은 토끼가 단기 속도전에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지만 인내심으로 끝까지 간다고 하지만 사실 거북이는 원래 하던 대로 제 갈 길을 갔을 뿐, 느리다는 콤플렉스가 아예 없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한국이 뒤늦게 뛰어 들었다고 하고 BIE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마다 벌써 이렇게 다 보여주면 다음에 뭘 할 건가? 하는 염려의 얘기들도 나왔지만, 콘텐츠의 나라답게, 갈수록 우리의 발표는 더욱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엑스포의 주제를 살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제 다음엔 어떤 스토리일까? 기대마저 갖게 하면서...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부터 본격 엑스포에 참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이미 두 차례의 인종엑스포(대전, 여수)와 하계 및 동계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미래의 등록엑스포에 대한 역량을 키워왔고 한 걸음씩 다져가고 있다.

Busan

● 부산 시민의 힘으로 시작된 월드엑스포 유치

주변에서 사우디와 우리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가 있다. 왕세자와 왕권이 리드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달리 우리는 2014년 11월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며, 시민의 열의를 알아보고자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139만이 참여, 열렬한 지지 속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왕권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시작된 엑스포 유치 활동이 우리의 차별점이다.

또 하나의 차별점을 든다면, 오일 머니와 2030 네움시티에 대한 투자 및 참여 기회로 온 세계에 러브콜을 부르고 있는 사우디와 달리 우리가 가진 힘은 단기적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 인류문명이 가야 할 길을 펼치면서 그 길에 동행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지난 1년의 엑스포 유치 활동을 통해 부산의 엑스포 유치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상승시키는 무형의 자산이 축적되고 있고, 부산이 꼭 방문해야 할 아시아 10대 도시에 선정되고 부산으로의 투자유치 및 기업 유치 규모 확대, 늘어난 자매 우호 협력 도시 체결, ODA 지원 활동의 확대 등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각종 지표들이 우리에게겐 등을 받쳐주는 우군의 바람이 되어주고 있다.

● 다가오는 4월,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보여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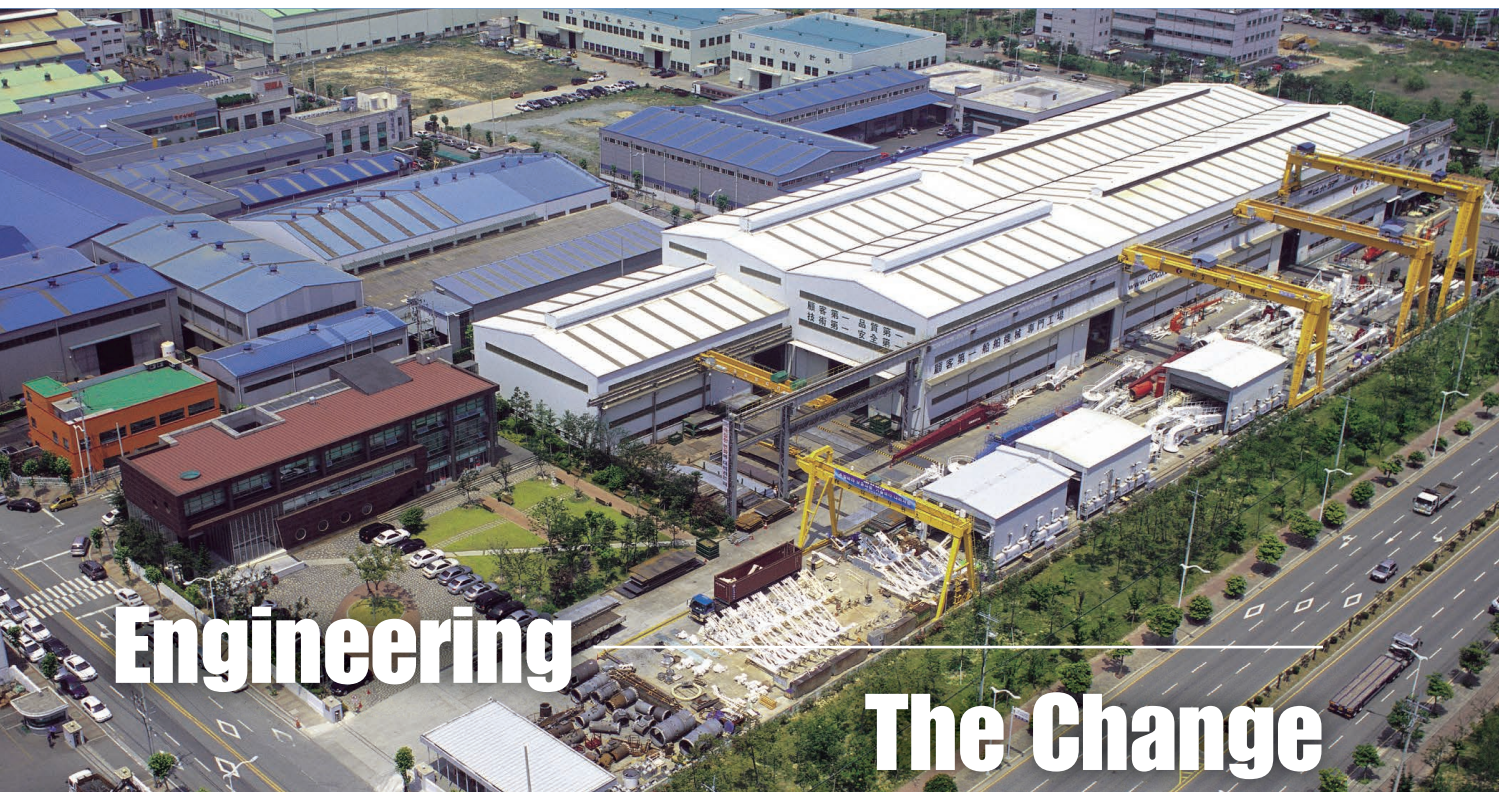
타 후보 경쟁국과의 우위는 어떤가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8년 전 139만 우리의 서명은 굳은 맹세가 되었고 오는 4월 우리를 보러오는 BIE 실사단에 그 단합된 의지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다시 한번 부산이 결의를 보여야 할 때이다.

4월 BIE 실사단 방문에 맞추어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는 시민이 참여하는 실사단 환영 행사 및 대규모 결집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의 바람으로 일으킨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유치!
범시민적인 엑스포 유치 활동,
그 거대한 엔진의 힘은 바로
우리 자신, 부산 시민이다.



작년 9월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추진위와 대학생들이 부산엑스포를 알리기 위해 다녀온 유라시아 대장정



Engineering

The Change

오리엔탈정공 사옥 전경

변화를 선도하는 오리엔탈 세계 최고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기업 (주)오리엔탈정공



오리엔탈정공 사옥 야간 전경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의 오리엔탈정공

대한민국의 조선해양강국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오리엔탈정공은 1980년에 설립되어 선박용 크레인을 설계, 제작하여 국내외 조선소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조선기자재업체이자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이다. '세계 최고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기업'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전 세계 조선부문 1위를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며 조선기자재 국산화에 앞 장 서은 굴지의 회사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상선에 설치되는 Provision Crane, LNG운반선과 화학제품운반선 등에 설치되는 Hose Handling Crane, 컨테이너선에 설치되는 Monorail Crane 등이 있다.



창립초기 철의장품으로 시작하여

세계 최고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기업으로 성장

오리엔탈정공은 창립초기 철의장품을 조선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해외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으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1994년 일천만불 수출탑, 2001년 삼천만불 수출탑과 은탑산업훈장, 2005년 오천만불 수출탑과 석탑산업훈장, 2006년 일억불 수출탑과 부산수출대상, 2011년 2억불 수출탑과 산업포장 등 각종 정부의 포상을 수상하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630억원,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 약 10%를 유지하는 세계 최고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지난 40여 년 동안의 기나긴 시간 중에는 조선불황의 시기와 더불어 각종 경영위기 상황도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오리엔탈정공의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다.

극저온 크레인 개발과 원천기술의 특허등록으로

2022년 부산산업대상 수상

오리엔탈정공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극지방 LNG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LNG운반 쇄빙선용 극저온 크레인을 개발하였다. 해당 크레인은 이전까지 유럽메이커가 독점공급을 해오고 있었으나 오리엔탈정공은 R&D 분야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극저온 크레인에 대한 원천기술을 국산화 개발하여 2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Big3 조선소에 공급



- ① 오리엔탈정공의 박세철 대표이사 회장
- ② 2022년 제40회 부산산업대상 시상식
- ③ 2020년 글로벌선도기업 명예의전당 헌정식

함으로써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2022년 9월 산업포장, 11월에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산업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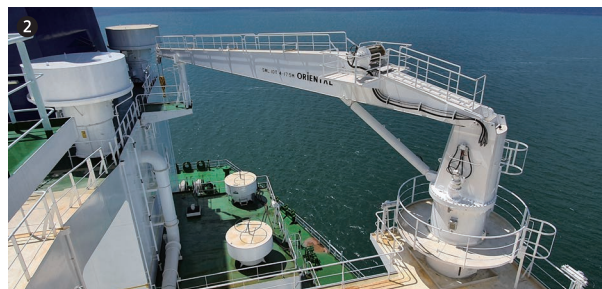
40년 이상 이어온 오리엔탈정공의 비결, 장인정신과 경영철학

오리엔탈정공이 IMF, 리먼사태 등 급변했던 외부환경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조선기자재업종으로 40년 이상, 코스닥 상장사로 20년 이상을 이어온 비결은 동사만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스며있는 성(誠)·화(和)·신(信)의 정신과 장인정신이다. 오리엔탈정공이 설명





2020년 창립40주년 행사



1 오리엔탈정공의 호스핸드링 크레인
2 Provision 크레인



너클 크레인



시설재 크레인



오프쇼어 크레인



Deck 크레인

하는 성·화·신 정신이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誠) 동료와 고객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유지하면(和) 임직원간의 관계를 비롯한 고객과의 관계에도 신뢰를 확보하게 되어(信) 선순환 구조로 성·화·신 정신이 유지된다는 철학적 사고가 깃든 오리엔탈정공만의 사훈이다. 또한 자신의 일에 정통하려 하는 철저한 직업정신이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 나가는 장인정신이 또 하나의 비결로 주문생산방식의 업종특성과 잘 부합하여 각종 경영 위기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여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오리엔탈정공은 2023년의 경영방침을 '변화를 선도하는 오리엔탈'로 세우고 꾸준한 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컨벤셔널 크레인의 친환경화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친환경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오리엔탈정공에서도 친환경 크레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고객이 요구하는 데로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크레인 부품과 각종 유체에 대한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부속 기술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노력은 컨벤셔널 크레인의 친환경화를 가속화하여 오리엔탈정공 선박용 크레인만의 차별화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임직원 교육과 R&D분야의 과감한 투자에 중점을 둔 경영

선박용 크레인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생산하는 주문 생산방식으로 제조사의 용접 및 가공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유압, 전장분야의 우수한 설계능력이 요구되는 특징이 있다.



3 2022년 간부급 단체 등산
4 2022년 임직원 단체 마라톤대회 참석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오리엔탈정공은 조선불황의 기간을 포함한 지난 40여 년간 R&D분야 고용유지 및 확대, 임직원 교육과 자기계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현재의 꾸준한 성장은 이러한 과감한 투자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오리엔탈정공의 이러한 경영 실적을 정부에서도 인정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ESG경영에 앞장서 나가는 기업

최근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와는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리엔탈정공도 다방면에서 ESG경영에 대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컨벤셔널 크레인의 친환경화, 임직원을 위한 매월 부서회비 지원부터 대한적십자사에 매월 기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 사업인 사랑의 열매 '나눔명문기업'에 가입을 통한 기부활동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장인의 혼을 담아 조선해양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업을 향해

오리엔탈정공은 40여년간 이뤄왔던 업적을 넘어서 장인의 혼을 담아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힘차게 날개 짓을 하여 반세기 50년 장수기업의 반열에 올라 조선해양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업으로 향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공간 세일즈의 혁신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주)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주)은 현실 속 실제 공간을 온라인 상의 3D 디지털 복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디지털트윈 기술 제공 기업이다. 디지털 트윈 공간을 통해 현실 공간을 둘러보는 것과 동일한 경험과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실 공간을 뛰어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다양한 3D 기술을 통해 구현할 수도 있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전시장, 공연장, 공원,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체험 시설 홍보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이나 기업 직원들의 현장 학습·체험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현장 학습·체험 분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주) 김덕은 대표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의 시작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의 김덕은 대표는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이 세 번째 창업기업이라고 한다. 대학교 재학시절 국악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첫번째 창업을 했고, 2005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인 3D 조선생산시물레이션 소프트웨어로 두번째 창업을 하였다. 두번째 창업기업은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았었다고 한다.

두번째 창업기업을 10년 정도 이끌던 2017년, 김덕은 대표는 평소 좋아하던 문화예술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해보겠다는 비전으로 세번째 기업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녹록하지 않았다. 나름 창업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했던 김덕은 대표는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창업 후 3년 정도 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는다. 거기에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 후 2개월 가량 막막한 시간을 보내던 중 과거 해오던 3D 기술을 떠올리게 되고 이를 온라인 전시분야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빛을 받으며 2020년 부산비엔날레, 202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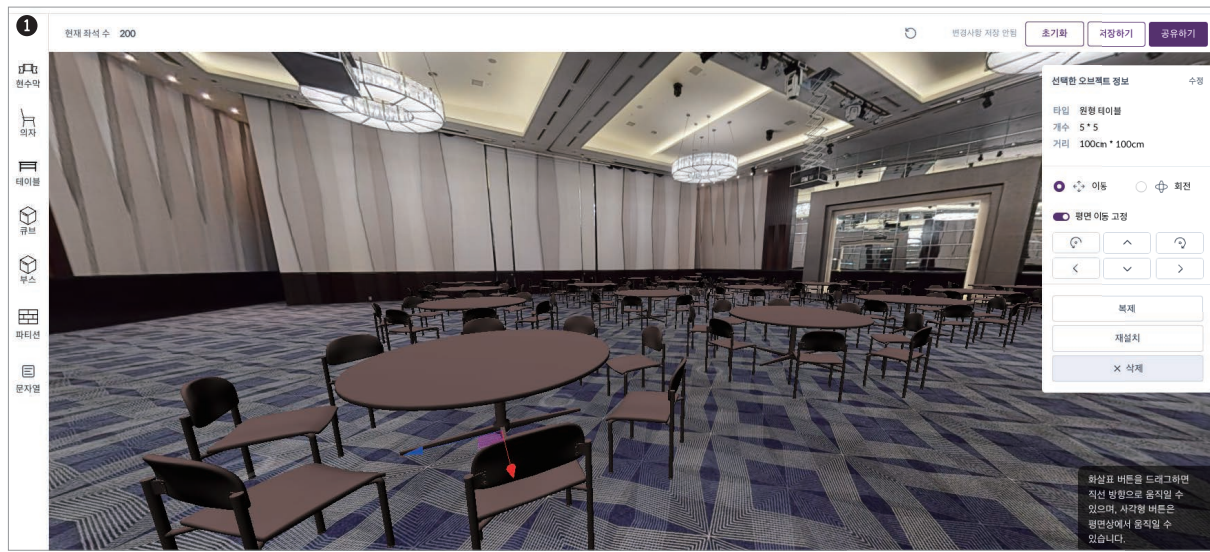


2022부산국제문화제 산업전 문화재 스타트업 IR피칭 대상 수상

형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 구축작업을 연이어 수주하게 되고, 컨벤션 센터와 같은 대형 전시장을 온라인으로 옮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장에 발 빠르게 선보이며 인천관광공사, 광주관광재단, 제주컨벤션뷰로 등 전국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온라인 전시





공간 디지털트윈 분야 트렌드 리더

김덕은 대표는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비즈니스 도전을 통해 현실공간을 온라인화하는데 큰 시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분야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다른 경쟁사들은 단순 콘텐츠 제작사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3D 공간기술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가까웠기에 다른 경쟁사는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간 기술을 시장에 선보인 결과 이러한 차별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음으로써 빠르게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람들은 어떤 공간을 이용하려고 할 때,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한다. 특히 참석자들이 불편함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해당 공간의 3차원 공간구조와 연관되어 있는데 온라인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공간을 사전에 방문하고 점검하는게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가족 캠핑을 가더라도 아빠는 캠핑장을 사전에 방문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현재 공간운영자들은 공간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리는데 소홀하거나 인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부분을 혁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현장에 온듯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의 3D 기술을 활용해 현실 공간에서도 주기 힘든 경험이나 정보를 서비스 한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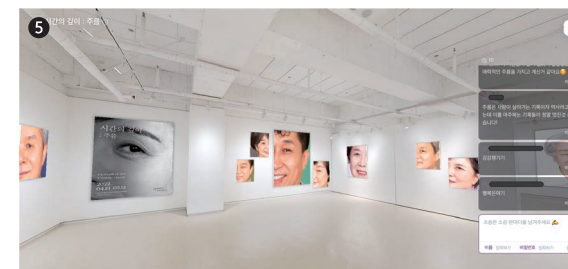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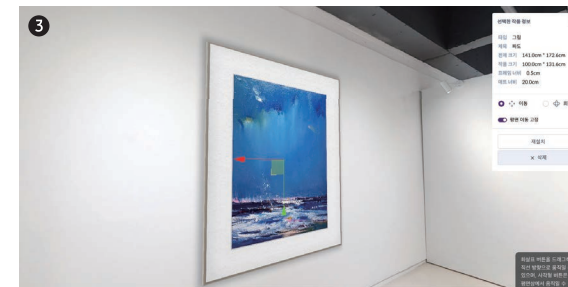


1 행사비품 배치 시뮬레이션 솔루션
2 온라인 현장 학습 개념도

최근 행사장에 테이블이나 현수막 등을 가상으로 설치해 보는 기술까지 개발하여 고객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온라인 현장 학습·체험까지 사업분야 확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최근까지 해오던 공간기술을 현장·체험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산업현장에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현장의 공간적인 특성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최근 교육분야에서는 현장학습이나 실습의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아예 산업체 현장 연수과정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이런 현장학습·체험을 온라인화하는 분야에도 큰 비전을 발견하고 연관 기술을 관련분야 전문 기업, 학교, 교수들과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이내로 관련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걸어본 가상전시 제작화면
4 걸어본으로 제작된 온라인 개인전
5 걸어본으로 제작된 온라인 사진전

온라인 갤러리 플랫폼, 걸어본!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트윈 사업으로 쌓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술분야에도 진출하였다. 김덕은 대표가 애초 진출하고자 했던 분야도 문화예술 분야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결과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2022년 4월 세계 최초로 디지털트윈 갤러리 기반의 온라인 전시 플랫폼, 걸어본(www.onthewall.io)을 출시하였다. 걸어본은 누구나 자신만의 온라인 미술/사진/영상 전시를 제작해서 인터넷상에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걸어본은 출시 10개월 만에 총 전시제작 수 2,000개 총, 전시관람자 수 40만 뷰를 돌파하는 등 국내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9월 부터는 아시아예술협회와 공동으로 베트남, 라오스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수익을 창출하였다. 최근에는 라오스 문화부, 외교부, 주한라오스 대사관과 협의를 마치고 2023년부터 라오스 국립 미술교육 기관에 걸어본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노이 국립미술대학교 걸어본 설명회



글_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 취업의 실패가 아닌 진로설정의 실패

올해 10년차 청년활동가이자 문화기획단체 대표로 부산을 기반으로 전국 곳곳의 청년과 주민들을 만나며 그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일들을 해왔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아이디어 실현과정에서 지역을 알아가고 관계자산과 경험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은 인턴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험과는 또 다른 가능성들로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사회복지학과 친구는 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충분히 복지를 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깨닫고 진로 목표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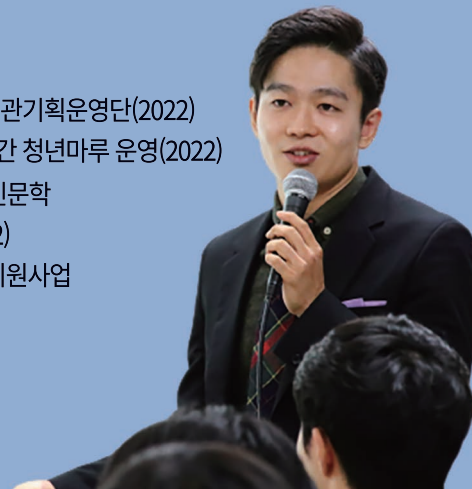
2020년도 부산형 청년 마음건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부산 청년의 특이점은 부산시 청년 10명 중 7명은 '나에게 맞는 일'에 대한 고민이 높고, 10명 중 5~6명은 '자신이 어떤 사람' 인가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며, 3~4명은 삶의 무기력을 겪어본 바 계속된 실패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8%가 직장인 청년이라고 한다면 취업 상태에서도 '자기탐색', '자기이해', '자기인식'과 같은 진로와 자아실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이다.

주요 경력

-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현)
- 부산진구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현)
- (주)상상마을 대표이사(현)

주요 활동

- 부산진구 청년주간 민관기획운영단(2022)
- 부산진구 동네청년공간 청년마루 운영(2022)
- 2022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청년 르네상스' (2022)
- 소셜 로컬리티 창출 지원사업 창업멘토링(2022)



이러한 부분은 취업의 실패보다 진로설정의 실패로 봐야하며, 실패나 한계를 경험했던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성장을 위해 부산을 떠나거나 혹은 지속된 실패로 무기력함에 빠져 니트 족이 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터인 기업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데 참여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업 내 청년들의 성장육구과 자아실현과 같은 진로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건 바로 조직문화의 변화이다.

✔ 청년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조직의 공감

작년 한 해 전국 곳곳의 청년 대표 및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청년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상주의 한 청년기업가는 자신도 청년임에도 신사업 아이템 선정에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직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했다. 빠르게 다변화하는 지금의 시장에서 자신은 이미 뒤쳐진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주의 한 공공기관의 청년기관장은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회의 때 '반말'로 진행하는 문화를 도입했다. 직급과 상관없이 더 젊은 층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서울은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직함과 이름 대신에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지 오래다.

그렇다면 수평적인 조직문화로의 변화는 단순히 청년들의 선호를 맞추기 위함일까? 부산의 스타트업부터 제법 알려진 기업까지 만나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조직경영이다. 그중에서도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고용은 기업들의 고난이도 과제 중 하나이다. 하나같이 '일 할 청년들이 없다'라고 외치지만 청년들은 가고 싶은 기업이 없다고 말한다. 깊이 이야기 해보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단순히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같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경남 통영에 있을 때 청년들이 지역에 남는 이유를 연구 해봤는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주로 양적으론 다양성으로 부족할 일자리와 문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남으려는 청년들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바로 또래 청년과의 만남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지역살이에 서로 공감할거리가 있는 또래 청년들과의 만남은 지역정책과 함께 미래설계를 상상토록 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같은 생각과 꿈이 있는 또래들이 있다면 지역의 한계와 편견을 극복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이라는 도시는, 부산의 기업은 과연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공감을 주고 있는가? 의견에 대한 공감은 청년들에게는 기회와 동의어다.

일할 맛이 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이 높고 낮음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기실현이 중요한 MZ세대에게 자신이 다니는 기업에 얼마나 기여하며 자신의 생각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공감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기회가 있다면 청년들에게 성장과 성취감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다만 그런 기회를 갖추기에는 지금의 전통적인 조직문화는 아쉽다.

✔ 청년의 성장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기업철학

청년들에게 왜 부산을 떠나는지 물어보면 성장을 위해서라고 한다. 부산에 있으면 계속 뒤쳐지는 느낌이 난다고들 한다. 풀어보면 업무의 발전, 진로의 발전이 없다는 말이다.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기회는 생각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부산 청년들은 생각의 발전을 이룰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서울을 가도 임금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오히려 체류비용이 높음에도 성장을 위해 떠날 정도로 성장에 목말랐다.

기업은 청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조금씩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직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래들의 사내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도록 하거나 정기적인 직무담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무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 등 청년들이 회사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 기업문화가 갖춰진다면 칼퇴하고 자기계발 하러 달려가기 보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청년의 성장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철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확정된 경기침체, 변수는 달러와 중국

경기침체의 충격을 줄이려면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이 살아야 한다

글_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진 투자컨설팅 대표

주요경력

-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
- 현) 진 투자컨설팅 대표

방 송

- 정철진의 목돈연구소(SBS 러브 FM)
- MBC 뉴스콘서트(2018)

주요 저서

- 재테크트렌드 2017~2020
- 자본에 관한 불편한 진실
- 투자 음모를 읽어라

100명 중 99명이 경기침체를 말하고 있다. 어쩌면 경기침체는 이미 확정된 것도 같다. 세계은행은 올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해마다 연초에 수정치를 발표한다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낮춘 건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 정부(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보면 경기침체는 더 무섭게 느껴진다. 1.6%. OECD(1.8%), 한국은행 (1.7%) 등과 비교해보면 정부 전망치가 가장 낮다. 정부의 전망은 늘 후한 편이다. 외국계 증권사나 경제 연구소들에 비해 높게 제시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정부 스스로가 이미 최악을 받아드리고 있다. 그런데 투자업계에선 이런 말도 존재한다. “100명 중 99명이 말하는 경기침체는 더 이상 경기침체가 아니다” 라고.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이번 칼럼의 주제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경기침체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달러약세, 우리에게 유동성이 필요하다

확정된 경기침체를 막아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미 달러화 약세이다. 작년 10월로 가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몰아치는 긴축정책에 사람들은 달러, 달러만 찾았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1,450원까지 치솟았다. 경제 참여자들이 오로지 달러만 갖고 싶어하니 달러의 초강세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예 ‘킹달러’ ‘갓달러’라는 별칭까지 등장했다. 달러 외엔 다 초죽음이었다. 주식도, 부동산도, 석유도, 금도, 암호화폐도, 그리고 실물경제도 모두가 달러를 손에 쥐고 있으니 경기는 최악이 될 수 밖에 없다. 시중 자금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동성이다. 쉽게 말해 달러가 은행 금고로 들어가 묵혀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와 돌아다녀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되고 소비도 하고, 생산도 숨통이 트인다. 그런데 매우 고무적인 것은 연초 이후 달러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가 상승이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230원대까지 떨어졌다.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는 반드시 ‘머니게임’을 하는 법이다. 달러 약세. 경기침체에 맞설 첫 번째 방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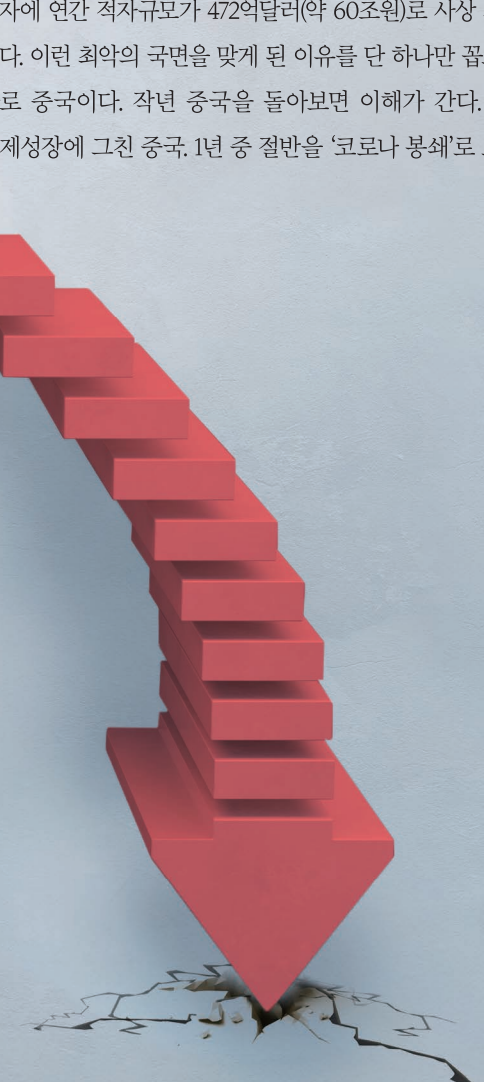
중국의 경기부양, 중국이 살아야 세계경제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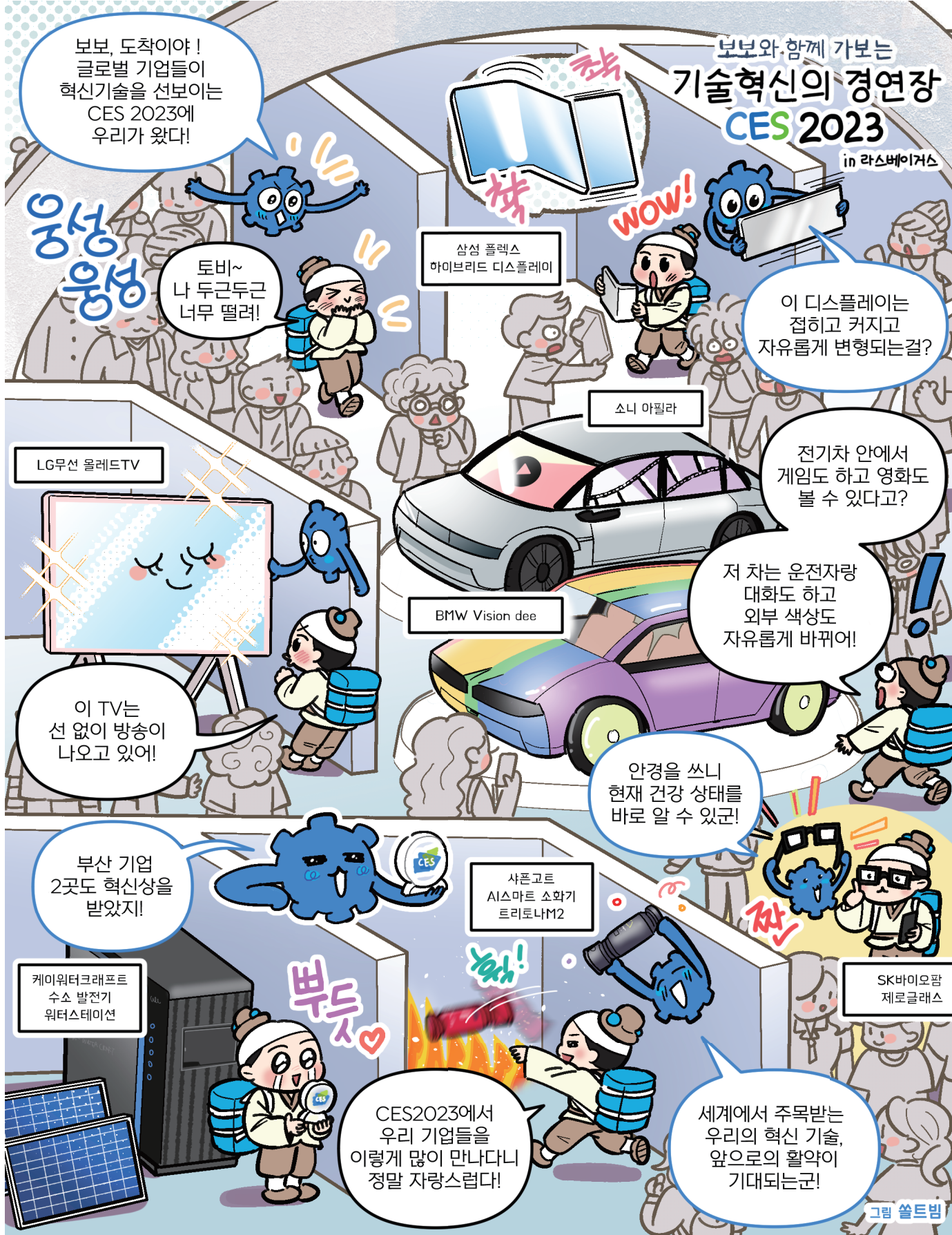
2022년 한국경제의 무역은 최악이었다. 9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연간 적자규모가 472억달러(약 60조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런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 이유를 단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중국이다. 작년 중국을 돌아보면 이해가 간다. 2%대 경제성장애 그친 중국. 1년 중 절반을 ‘코로나 봉쇄’로 보냈으

니 더 이상 할말도 없다. 그런데, 이런 중국 코로나 봉쇄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은 곳이 바로 한국경제였다. 가까스로 대중국 흑자는 났지만 무역흑자국 1, 2위를 다투던 중국은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런 큰 덩치가 빠졌으니 한국경제 무역이 잘 될 리가 없다. 일단 올 1월까지의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작년 12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봉쇄를 풀었기 때문이다. 물론 엄청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방역의 위기를 지적하지만, 이것을 극복해 낸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올 2월 이후 중국이라는 생산과 소비의 엔진이 재가동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대하는 건 중국의 소비력이다. 굳이 시진핑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아도 된다. 중국 인민들이 평소처럼만 소비를 해도 기저효과로 인해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 설비투자자와 생산 공장이 빠르게 돌아간다면 세계 경제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도 있다.

경기침체, 알았다면 대비하면 된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경제 전체가 ‘경기침체’란 단어 하나에 주눅이 들어있다. 2023년 경제전망 키워드 역시 ‘경기침체’이다. 하지만 경제는 결국 심리이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유럽 경제는 이미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 제조업 지표는 상승 반전하고 있고 독일 주식시장은 전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 올해 진짜로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너도 나도 경기침체를 말하고 있을 정도라면 대비하면 된다. 아니, 기본적인 경영자라면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1997년 IMF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을 보자. 흥청망청 그 자책였다. 환율 800원대 시절에 그 어떤 석학도 위기를 말하지 않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도 비슷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었고, 전국적으로 집값은 자고 나면 올랐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그 어떤 언론에서도 찾기 힘든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100명 99명이 경기침체를 말하고 있다. 알았다면, 대비하고 긴장하자. 그러면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달러 약세와 중국의 경기부양이란 호재를 만난다면 올해는 한결 수월한 경기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세상 모든 혁신 기술이 모였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래를 먼저 내다볼 수 있는 차세대 혁신 기술 박람회 개최됩니다. 바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주관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입니다. CES는 독일 IFA, 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IT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우주항공, 식품, 해양 등 다양한 산업을 넘나드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3'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로벌 기업들의 IT·융합기술의 장

2023 CES는 174개국에서 약 3,2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약 12만명이 참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CES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각종 기술 개발 및 융합이 인간의 안녕(well-being)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CES에는 메타버스, 초연결, 초연결,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분야가 참가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메타버스	3차원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향후 미래 ICT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부상
초연결	AI, AR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품간 연결을 확장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
친환경	지속가능성, 환경, ESG 등이 전 산업군의 제품들에 적용
모빌리티	자율주행, 전기차, 커넥티드카, 차량용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이 미래 산업의 주축으로 부상
디지털 헬스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과 헬스케어 수요 급증 통해 헬스케어 분야 혁신 기술의 지속 등장

! 한국 기업들 활약 돋보여

CES 2023에 출품된 제품 중 612개 제품 및 서비스가 혁신상을 수상하였는데, 한국 기업이 216개의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중 부산 기업인 샤프고트와 케이워터크래프트는 인공지능 소화기 '트리토나M2'와 탄소제로 수소발전기 '워터스테이션'을 선보이며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고혁신상 분야에서도 23개중 12개를 수상함으로써 두 분야 모두 1위를 기록하며 혁신기술 강국으로써의 면모를 증명하였습니다. CES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선보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판로를 개척과 수출을 위해서는 상품화 및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 새로운 혁신 기술들 대거 선보여

글로벌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소니는 혼다와 개발한 차량 '아펠라(Afeela)'를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맞추어 주행 중 영화,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BMW는 음성언어로 운전자와 대화가 가능하고, 차량외관 색상을 32가지로 바꿀 수 있는

CES2023에서 우리 기업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우리의 혁신 기술,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군!

보보, 도착이야!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선보이는 CES 2023에 우리가 왔다!

웅성웅성

LG무선 올레드TV

이 TV는 선 없이 방송이 나오고 있어!

부산 기업 2곳도 혁신상을 받았지!

케이워터크래프트 수소발전기 워터스테이션

부드

삼성 플렉스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

소니 아펠라

BMW Vision dee

샤프고트 스마트 소화기 트리토나M2

SK바이오amp 제로글래스

그림 슝트빔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

부자의 인문학

가야 게이치 | 문예춘추사 | 16,800원

모두가 부자를 꿈꾸지만 부자의 길이 인문학을 도움닫기로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시대나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문학을 배우는 일이다. 인문학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즐거움'이자 '특권'이기도 하다. 기자 출신으로 성공한 투자 전문가이기도 한 저자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자신의 조언을 이 책 《부자의 인문학》으로 완결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눈앞의 정보가 아니라 사회나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인문학적 식견이 눈앞에 나타난 기회를 확실하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부자 일수록 인문학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인문학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만 매몰될 때, 인문학을 아는 사람은 진짜 지식이 무엇인지 배움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여 남들보다 먼저 성공하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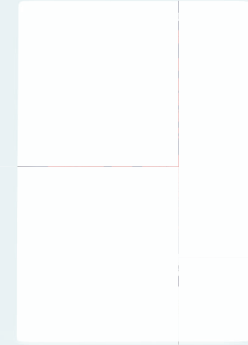
홍익희의 신 유대인 이야기

홍익희 | 클라우즈나인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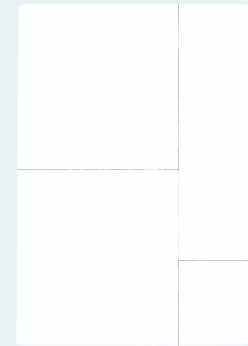
이 책은 국내 최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전 세종대학교 교수가 조선일보에 2021년 1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홍익희의 신 유대인 이야기'를 출간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버블 후유증에 따른 고금리, 고환율,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 앞에 있다. 그런 우리에게 신 유대인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성취해나간 이야기는 문제해결의 힌트를 준다. 또한 이 책은 신 유대인 이야기이자 그 자체로 현대 경제사이고 과학기술사이고 문명의 발전사이다. 이 책에서는 유대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숨은 설계자며 기술 문명의 개발자들이라는 사실을 역사와 함께 재미있게 풀어낸다. 자본주의 탄생부터 현대까지 시간여행을 하듯 즐길 수 있다.

어떻게 신 유대인들은 위기에서도 부와 권력과 미래를 만들어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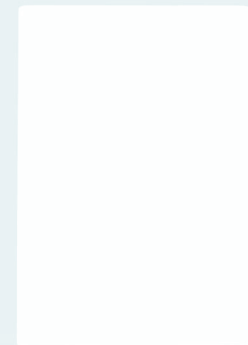
경제병리학으로 진단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성공철학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성공철학서의 걸작



일터의 고민이 해결되는 순간 인생의 문제도 풀린다



경제파국으로 치달는 금융위기

최용식 | 새빛 | 18,000원

2023년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중국의 성장률은 중국정부의 통계조작만 없다면 마이너스 5%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고,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일본의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는 1998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했을 때, 노숙자가 넘쳐났고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도산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는 왜 발생하고,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 어떤 결말을 남길까? 이 책은 이 질문을 해명하기 위해 출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스스로 진단해 내고, 나아가 향후 나타날 경제위기를 스스로 예측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 | 벡스웍 | 16,500원

이 책에는 막대한 부를 이룬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비롯해 부와 성공을 거머쥔 500여 명의 경험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그런 부와 맞바꿀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바닥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오직 생각과 아이디어, 체계적인 계획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지난 50년간 미국인들에게 알려진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성공담으로부터 정리된 돈 벌기에 대한 철학의 총체가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앤드루 카네기는 그 누구라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위대한 기업가들을 인터뷰할 것을 저자인 나폴레온 힐에게 제안했다. 힐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년에 걸쳐서, 507명을 인터뷰하고 조사하여 이 책을 펴냈다.

소크라테스 성공법칙

데이비드 브렌델, 라이언 스텔처 | 동양북스 | 19,800원

일터와 일상에서 생기는 문제의 답을 소크라테스에게서 찾아낸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와 오바마행정부 경영 컨설턴트였던 라이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행했던 대화법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현대에 맞게 다듬었다. 그것은 개인의 불안과 분노를 없애고 최고 성과를 내는 방법으로 '생각, 대화, 창조'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과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하게 해결하는 법,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조직 관리법, 최고 성과를 올리는 법, 조직이나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다. 소프트해 보이는 이 방법은 눈부신 혁신을 불러일으켜 수의 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한다. 🧠

Busan Economic News

2023 02 February

(주)금양

부산시와 2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주)금양은 1월 3일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2차전지 생산기지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주)금양은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내 2차전지 생산시설을 신설하고 투자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금양의 투자와 고용 창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류광지 (주)금양 대표이사는 “부산이 2차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정통 아이리시 위스키 ‘맥코넬스’ 독점 계약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1월 6일 아일랜드 J&J 맥코넬스와 정통 아이리시 위스키 ‘맥코넬스’의 독점 수입·유통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맥코넬스’의 알코올 도수는 42도이며 700ml 용량으로 올해 상반기 내 출시 예정이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그 동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의 위스키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양한 위스키를 지속 발굴하여 소비자 니즈 충족과 함께 국내 위스키 시장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일

부산진구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전달

사회복지법인 동일은 1월 10일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주)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이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일은 2009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이웃돕기성금 기탁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한 성금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BNK부산은행

에어부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BNK부산은행은 1월 10일 에어부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의 금융 상품 출시 및 에어부산 이용고객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들의 혜택을 늘리고, 부산 여행을 준비하는 국내 고객들의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주)

현대백화점 부산점 지역경제 발전 업무협약 체결

에어부산(주)은 1월 12일 에어부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현대백화점 부산점과 지역경제발전과 양사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에어부산과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양사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 운영, 고객 중심의 특색 있는 이벤트 기획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에어부산(주) 관계자는 “항공과 백화점이 연계한 특색 있는 홍보-마케팅을 펼쳐 여행객과 백화점 고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조선(주)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설맞이 명절 선물세트 전달

대선조선(주)은 1월 12일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 약 3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1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주)은 매년 명절 선물세트 후원, 겨울철 김장 후원, 작은 음악회 및 동민 노래자랑 후원 등 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선조선(주) 관계자는 “오늘 전달한 물품이 설 명절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usan Economic News

2023 02 February



**부산시·(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업 기부금 전달식 개최**

부산시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는 1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은하 범시민유치위 집행위원장과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 박용수 (주)골든블루 회장 등 후원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기부금은 4월 국제박람회기구의 부산 실사와 연말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지역 기업인들이 엑스포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마련하였다.

기부금 후원을 위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원로 기업인 등 14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24억원의 기부금을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기업인은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세운철강(주) 신정택 회장, (주)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경동건설(주) 김재진 회장,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 (주)동일 김종각 회장, (주)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주)성우하이텍 이명근 회장, (주)골든블루 박용수 회장, (주)디더블유 국제물류센터 신한춘 회장, 부산영사단 강외구 단장, 우양산업개발(주) 조효식 회장, 미래에셋증권(주) 최현만 회장, (주)AUM company 김대천 회장 등 14명이다. 기부금은 4월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응을 위한 재원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희창물산(주)

부산 적십자 희망나눔 성금 1,000만원 전달

희창물산(주)은 1월 1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2023 적십자 희망나눔 국민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창물산(주)은 1980년 설립 이후 40여년간 전 세계 곳곳에 1,000종이 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희창물산(주) 권중천 회장은 “평소 지속 가능한 부산을 위해 노력해온 적십자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부산의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 하동차엑스포 조직위원장 선임

넥센그룹은 1월 16일 강병중 회장이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로 부터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첫 민간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강병중 회장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와 함께 오는 7월 말까지 조직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민간 조직위원장으로서는 엑스포 홍보 및 기업후원 유치에 발벗고 나설 예정이다. 강병중 회장은 “차 문화와 차 산업의 메카인 경남 하동에서 열리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주)경성리츠

저소득가정에 목욕·헬스이용권 지원

(주)경성리츠는 1월 16일 부산 사하구·연제구 저소득 조손 가정 및 취약계층 아동 가정을 위해 2,000만원 상당의 목욕·헬스이용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용권은 사하구청과 연제구청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며, (주)울집웰리빙서비스가 운영하는 울집사우나 대티·장림·부산시청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경성리츠 채창일 대표이사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취약계층 조손 가정과 장애아동 가정 등이 겨울철 걱정이 없도록 따뜻하게 목욕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 소감을 밝혔다.



동원개발그룹

장호의 부회장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부

동원개발그룹은 1월 18일 장호의 부회장이 아버지의 고향인 통영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호의 부회장은 “아버지의 고향 통영시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작은 보탬이지만 통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즐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2023년 2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드립니다.



01 사업주/관리자를 위한 노무리스크 관리 및 노무비절감 방안

일시 2023.2.6.(월) 09:30~17:30 (1일 7시간)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사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가교 대표)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용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채용 시 리스크 관리	- 채용절차공정화 리스크 관리 - 채용내정취소 리스크 관리 - 수습근로자 리스크 관리 - 비정규직(기간제, 파견근로자) 리스크 관리	임금 리스크 관리	- 포괄임금제 리스크 관리 - 평균임금 산정 리스크 관리 - 통상임금 산정 리스크 관리 - 최저임금 산정 리스크 관리
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 연장근로 리스크 관리 - 야간·휴일근로 리스크 관리 - 휴게시간 리스크 관리 - 인건비 절감을 위한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리	여성·비정규직 리스크 관리	- 성희롱예방교육 리스크 관리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리스크 관리 - 여성·비정규직 차별 리스크 관리
휴일·휴가·휴직 리스크 관리	- 휴일의 대체, 대체공휴일 리스크 관리 - 근로자의 날 리스크 관리 -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리스크 관리 - 출산·육아휴직 리스크 관리	근로관계 종료 시 리스크 관리	- 인사이동 리스크 관리 -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 리스크 관리 - 징계(정직, 해고 등) 리스크 관리

02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핵심 인사노무 관리전략과 대응방안

일시 2023.2.7.(화) 09:30~17:30 (1일 7시간)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사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가교 대표)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용

주 제	내 용	주 제	내 용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 개선방안	- 영세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노무관리지도 - 감독대상 선정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방향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항 - 사업장 근로감독 주기 및 범위 조정	근로감독 대응요령	- 근로감독 시 핵심서류 준비 - 근로감독 대비 자율점검표 - 근로감독 시정지시서 개선 요령 - 근로감독 지적사항의 처벌조항 - 근로감독 수검시 유의사항
근로감독 체크포인트	-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 - 임금대장 체크포인트 - 급여명세서 체크포인트 - 연차휴가대장 체크포인트 - 출·퇴근부 체크포인트 -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체크포인트 - 취업규칙 심사 체크포인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대응 요령	- 징계절차 및 징계양형 체크포인트 - 징계사유 조사보고서 작성 체크포인트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체크포인트 -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 신청서 작성 체크포인트

03 노동법 중심으로 풀어보는 임금관리 이론과 실습

일시 2023.2.17.(금) 09:30~13:30 (1일 4시간)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사 여찬모 노무사(세무법인 삼신)

수강료 회원 44,000원, 비회원 88,000원

내용

주 제	내 용
근로기준법 임금의 계산원리 이해	- 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대한 이해 - 법정·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근로시간과 임금의 상관관계	- 임금계산의 원칙 및 원리 - 각종특별 근로시간제도에 이해 -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임금계산 실무 - 실례사례를 통해 이해증진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비교	-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의 구분 원칙 - 실사례를 통한 항목별 비교 구분 - 실사례를 통한 계산 실무
실무상 임금계산 등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실무 - 급여테이블 작성 실무 - 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04 2일 완성! 구매관리실무 마스터

일시 2023.2.23.(목)~24.(금) 09:30~17:30 (2일 14시간)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사 목진환 대표

수강료 회원 154,000원, 비회원 308,000원

내용

주 제	내 용
구매관리의 중요성과 구매업무 프로세스	- 기업경영과 구매관리의 중요성 - 구매관리 기본 개념과 구매방법 유형 - 구매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세 - 구매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단계별 업무 - 구매사양의 개요와 종류 - 구매요청서와 견적서의 중요성
구매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의 개요와 용어의 이해 - 구매협상 프로세스와 단계별 주요 관리 포인트 - 계약의 기본 요소와 구매계약 체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매원가의 개념과 가격 결정방법	- 구매원가 구성요소와 특징 - 구입품목의 가격결정 방법
협력업체 관리의 개요와 프로세스	- 협력업체의 개념과 분류 -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
납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의 필수 요소	- 협력업체의 납기관리 -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청년 취업지원과 기업의 인력난을 지원코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오니 지역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지원내용

- 2023. 1. 1.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2개월 간 월 60만원씩 지원 (최대 720만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추가지급

▶ 기업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내 채용자부터 지원가능

- 2023. 1. 1.이후 채용자는 23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 2022. 12. 31.까지 채용자는 22년 사업 운영지침 적용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최대 30명)

▶ 부산상공회의소 관할기업 소재지

- 부산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본사기준, 해당지역 소재 기업만 진행 가능)

참여대상

▶ 청년

- 2023. 1. 1. ~ 2023. 12. 31.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전환)한 “만 15~34세”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애로청년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등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 단, 5인 미만 기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지원 대상 판단

• 연 매출액

-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 인위적 감원

-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정리하고 등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work.go.kr/youthjob)
- ※ 운영기관 「부산상공회의소」 선택

진행절차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088~9 F. 051)990-7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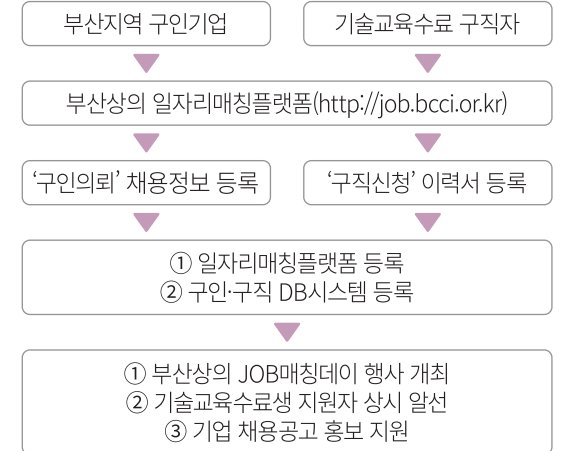
기술인재 일자리매칭

부산지역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을 위한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 플랫폼」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내용: 지역 구인기업 및 기술교육훈련 전문인력 POOL을 통한 상시 일자리 알선·채용지원
※ 구인기업이 일자리매칭 플랫폼을 통해 인재 채용 시, 정부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일자리매칭플랫폼(<http://job.bcci.or.kr>)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 전문기관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 신청문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일자리지원팀
T. 051-990-7199, 7085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안내

층수	면적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비고
	임대	전용				
4층	60.0평 (198.0㎡)	36.0평 (118.8㎡)	78,000,000	780,000	1,560,000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별도

※ 문의 : 경영지원본부 남정호 과장대리 (051-990-7034)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임대 안내

1F 대강당



좌석 수 : 360석(극장식)
면적 : 144평(476㎡)
현판규격 : 710cm×7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8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상의홀



좌석 수 : 200석
면적 : 160평(528㎡)
현판규격 : 710cm×9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40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110,000원
오후 14:00~18:00	50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50,000원
1일	700,000원	냉·난방	140,000원

2F 국제회의장



좌석 수 : 100석
면적 : 99평(327㎡)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8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80,000원
오후 14:00~18:00	35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20,000원
1일	500,000원	냉·난방	100,000원

2F 중회의실



좌석 수 : 70석
면적 : 57평(190㎡)
현판규격 : 500cm×80cm
사용료 (부가세 별도)

오전 09:00~12:00	220,000원	근무시간내 초과 (1H)	70,000원
오후 14:00~18:00	280,000원	근무시간외 초과 (1H)	100,000원
1일	400,000원	냉·난방	80,000원

회의실 사용료 할인안내

50% 할인
회원업체(당연)

20% 할인
회원업체(임의), 입주사, 3일(전일) 연속 사용업체

☎ 임대문의 : 경영지원본부 TEL 051.990.7150



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첫 번째 월드클래스 엑스포

변화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선박용 크레인 전문기업
(주)오리엔탈精工
Engineering The Change

50년 장수기업의 반열에 올라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튼튼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